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당선·유력자

(3일 새벽 1시 현재)

〈범례〉

- ▲이름
- ▲나이·정당
- ▲주요 경력
- ※정당 약칭: 민=민주당, 무=무소속

광주	여수시장	구례군수	해남군수
동구청장 유태명 66·민 동구청장 당선	오현섭 VS 김충석 경합	서기동 64·민 구례군수 당선	박철환 51·민 군의원 당선
서구청장 김선옥 VS 전주연 경합	순천시장 노관규 49·무 순천시장 당선	고흥군수 박병중 56·민 고흥군수 당선	진도군수 이동진 64·민 정당인 당선
남구청장 최영호 45·민 정당인 당선	나주시장 임성훈 50·민 (주)위택인스트루먼트 당선	보성군수 정종해 63·민 보성군수 당선	영암군수 김일태 65·민 영암군수 당선
북구청장 송광운 56·민 북구청장 당선	광양시장 이성웅 68·무 광양시장 당선	화순군수 전완준 51·무 화순군수 당선	무안군수 서삼석 50·민 무안군수 당선
광산구청장 민형배 48·민 대학교수 당선	담양군수 최형식 54·민 정당인 당선	장흥군수 이명홍 61·민 장흥군수 당선	영광군수 정기호 55·민 영광군수 당선
전남	장성군수 김양수 59·민 정당인 당선	강진군수 황주홍 58·무 강진군수 당선	함평군수 안병호 62·민 문화농장대표 당선
목포시장 정종득 69·민 목포시장 당선	곡성군수 허남석 54·무 정치인 당선	완도군수 김종식 59·민 완도군수 당선	신안군수 박우량 54·무 신안군수 당선

오만한 민주당 매서운 심판

■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선거 표심

당보다 인물... 거센 무소속 돌풍 현직 단체장들에게도 준엄한 경고

광주·전남지역 유권자들은 6·2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과 현역 단체장을 심판했다.

특히 광주·전남에서는 북풍과 역북풍, 노풍이 판을 쳤던 다른 지역 선거와 달리 오로지 지방자치의 본질을 선거에 담으려는 유권자의 성숙한 자세가 이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6·2 지방선거 광주·전남 27개 시·군·구 개표 결과, 3일 새벽 1시 현재 민주당은 19개 지역, 무소속은 8개 지역에서 앞서고 있다. 애초 4~5곳, 많아야 7곳에서 당선이 가능하던 예상을 깨고 무소속이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 결과를 깊이 들여다 보면 민주당과 현직 단체장에 대한 심판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순천·광양·화순·강진 등은 무소속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또 여수·곡성·신안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앞서고 있다. 무소속 바람이 폭풍으로 변한 것이다.

특히 전남지역 유권자는 부부시장·군수의 불명예를 더 이상은 허락하지 않았다. 장성에서는 부부군수로 서 재선을 노리던 이철 현 군수 대신

특히 동부권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모두 앞서고 있다.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전멸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동부권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남용, 무소속 바람이 예고됐던 곳이었다. 전남지역 유권자들이 오만한 민주당에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광주·전남 유권자는 독선에 가득 차고 오만한 현직 시장군수에게 심판을 내리거나 준엄한 경고를 보냈다.

광주의 경우 3선에 도전하는 황일봉 현 남구청장을 의면하고 신진 최영호 후보를 새 단체장으로 선택했다.

또 곡성에서는 조형래 현 군수를 버리고 허남석 후보를 뽑았다. 조금이라도 안이한 시·군정을 한다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유권자의 힘'을 과시한 것이다.

특히 전남지역 유권자는 부부시장·군수의 불명예를 더 이상은 허락하지 않았다. 장성에서는 부부군수로 서 재선을 노리던 이철 현 군수 대신

에 민주당 김양수 후보를, 나주에서는 중도 하차한 신정훈 전 시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부부시장을 노리던 주향득 후보를 냉정하게 내치고 기업인 출신인 임성훈 후보를 새 목민관으로 각각 선택했다.

또 고흥·강진·신안에서는 비록 낙선의 명예를 주지는 않았지만 현직 군수가 가슴을 쓰러낼 정도로 경미한 표차의 승리로 경고를 내렸다.

당초 이 지역은 현직 후보가 월등한 표차로 당선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유권자는 정차 투표에서 오만한 군정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 같은 양상이 나타난 것은 '묻지 마 민주당 투표'가 상당부분 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을 보지 않고 인물의 뉘앙스만을 본 것이다. 또 인지도가 높은 현직을 밀어주는 '현직 프리미엄'도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

더 이상 중앙정치에, 또 현직이라는 겉모습에 연연하지 않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갈망하는 유권자의 성숙한 자세가 투표로 이어진 것이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광주·전남지역 유권자의 성숙도가 엄청나게 높음을 알 수 있다"며 "더 이상 광주·전남에서는 '안방'이나 '뒷밭'은 없으며 현직이 프리미엄을 갖고 쉽사리 다시 자리를 차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광주·전남지역 유권자의 성숙도가 엄청나게 높음을 알 수 있다"며 "더 이상 광주·전남에서는 '안방'이나 '뒷밭'은 없으며 현직이 프리미엄을 갖고 쉽사리 다시 자리를 차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광주·전남지역 유권자의 성숙도가 엄청나게 높음을 알 수 있다"며 "더 이상 광주·전남에서는 '안방'이나 '뒷밭'은 없으며 현직이 프리미엄을 갖고 쉽사리 다시 자리를 차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광주·전남지역 유권자의 성숙도가 엄청나게 높음을 알 수 있다"며 "더 이상 광주·전남에서는 '안방'이나 '뒷밭'은 없으며 현직이 프리미엄을 갖고 쉽사리 다시 자리를 차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광주·전남지역 유권자의 성숙도가 엄청나게 높음을 알 수 있다"며 "더 이상 광주·전남에서는 '안방'이나 '뒷밭'은 없으며 현직이 프리미엄을 갖고 쉽사리 다시 자리를 차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광주·전남지역 유권자의 성숙도가 엄청나게 높음을 알 수 있다"며 "더 이상 광주·전남에서는 '안방'이나 '뒷밭'은 없으며 현직이 프리미엄을 갖고 쉽사리 다시 자리를 차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광주·전남지역 유권자의 성숙도가 엄청나게 높음을 알 수 있다"며 "더 이상 광주·전남에서는 '안방'이나 '뒷밭'은 없으며 현직이 프리미엄을 갖고 쉽사리 다시 자리를 차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광주·전남지역 유권자의 성숙도가 엄청나게 높음을 알 수 있다"며 "더 이상 광주·전남에서는 '안방'이나 '뒷밭'은 없으며 현직이 프리미엄을 갖고 쉽사리 다시 자리를 차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광주·전남지역 유권자의 성숙도가 엄청나게 높음을 알 수 있다"며 "더 이상 광주·전남에서는 '안방'이나 '뒷밭'은 없으며 현직이 프리미엄을 갖고 쉽사리 다시 자리를 차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광주·전남지역 유권자의 성숙도가 엄청나게 높음을 알 수 있다"며 "더 이상 광주·전남에서는 '안방'이나 '뒷밭'은 없으며 현직이 프리미엄을 갖고 쉽사리 다시 자리를 차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광주·전남지역 유권자의 성숙도가 엄청나게 높음을 알 수 있다"며 "더 이상 광주·전남에서는 '안방'이나 '뒷밭'은 없으며 현직이 프리미엄을 갖고 쉽사리 다시 자리를 차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광주·전남지역 유권자의 성숙도가 엄청나게 높음을 알 수 있다"며 "더 이상 광주·전남에서는 '안방'이나 '뒷밭'은 없으며 현직이 프리미엄을 갖고 쉽사리 다시 자리를 차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광주·전남지역 유권자의 성숙도가 엄청나게 높음을 알 수 있다"며 "더 이상 광주·전남에서는 '안방'이나 '뒷밭'은 없으며 현직이 프리미엄을 갖고 쉽사리 다시 자리를 차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광주·전남지역 유권자의 성숙도가 엄청나게 높음을 알 수 있다"며 "더 이상 광주·전남에서는 '안방'이나 '뒷밭'은 없으며 현직이 프리미엄을 갖고 쉽사리 다시 자리를 차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광주·전남지역 유권자의 성숙도가 엄청나게 높음을 알 수 있다"며 "더 이상 광주·전남에서는 '안방'이나 '뒷밭'은 없으며 현직이 프리미엄을 갖고 쉽사리 다시 자리를 차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광주·전남지역 유권자의 성숙도가 엄청나게 높음을 알 수 있다"며 "더 이상 광주·전남에서는 '안방'이나 '뒷밭'은 없으며 현직이 프리미엄을 갖고 쉽사리 다시 자리를 차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광주·전남지역 유권자의 성숙도가 엄청나게 높음을 알 수 있다"며 "더 이상 광주·전남에서는 '안방'이나 '뒷밭'은 없으며 현직이 프리미엄을 갖고 쉽사리 다시 자리를 차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광주·전남지역 유권자의 성숙도가 엄청나게 높음을 알 수 있다"며 "더 이상 광주·전남에서는 '안방'이나 '뒷밭'은 없으며 현직이 프리미엄을 갖고 쉽사리 다시 자리를 차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광주·전남지역 유권자의 성숙도가 엄청나게 높음을 알 수 있다"며 "더 이상 광주·전남에서는 '안방'이나 '뒷밭'은 없으며 현직이 프리미엄을 갖고 쉽사리 다시 자리를 차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광주·전남지역 유권자의 성숙도가 엄청나게 높음을 알 수 있다"며 "더 이상 광주·전남에서는 '안방'이나 '뒷밭'은 없으며 현직이 프리미엄을 갖고 쉽사리 다시 자리를 차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광주·전남지역 유권자의 성숙도가 엄청나게 높음을 알 수 있다"며 "더 이상 광주·전남에서는 '안방'이나 '뒷밭'은 없으며 현직이 프리미엄을 갖고 쉽사리 다시 자리를 차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광주·전남지역 유권자의 성숙도가 엄청나게 높음을 알 수 있다"며 "더 이상 광주·전남에서는 '안방'이나 '뒷밭'은 없으며 현직이 프리미엄을 갖고 쉽사리 다시 자리를 차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광주·전남지역 유권자의 성숙도가 엄청나게 높음을 알 수 있다"며 "더 이상 광주·전남에서는 '안방'이나 '뒷밭'은 없으며 현직이 프리미엄을 갖고 쉽사리 다시 자리를 차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운태 당선자 광주시 인수지원단 구성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가 민선 5기 광주시 인수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 인수지원단은 다음달 1일 강 당선자의 시장 취임식 이전까지 시장 업무의 인수·인계를 맡게 된다. 시청 정책기획관실에 꾸려질 인수지원단에는 광주시 공무원과 강운태 당선자 측이 선임하는 인수 책임자들이 참여하게 된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송귀근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수지원단 산하에 광주시 정책기획관실·감사관실·공보관실·총무과 등이 주축이 돼 총괄지원·인계인수·홍보대책·행정지원 등 4개 팀을 구성하게 된다. 3일 오후엔 강 당선자에 대한 첫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준영 전남지사 당선자 내주 직무 복귀

3선 연임에 성공한 박준영 민주당 전남지사 당선자는 오는 7일 직무에 복귀,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민선 5기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박 당선자는 3일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리는 당선증 교부식에 참석, "잘사는 전남 건설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소감을 밝히고 국립 5·18 묘지를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박 당선자는 이어 지지자들과 선거사무소 해단식을 가진 뒤 다음주 월요일 직무에 복귀, 대형 사업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현안 업무를 이어가게 된다. 한편 박 당선자는 지난 3월 25일 전남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 뒤 선거일까지 직무가 정지됐다.

/*박지영기자 dok2000@kwangju.co.kr



www.nanomtech.co.kr
대표번호 1577-8515

황금의 5분을 아십니까?

하루 5분만 투자하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5분만에... HeartPlus ACQ-1000E...
노년층... 건강...



광주비학기술원과 공동연구개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편의성과... 건강...

